

제360회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회의록 제 8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8년5월18일(금)

장 소 제5회의장(220호)

의사일정

1. 청년기본법안 공동발의의 건
2.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정된 안건

1. 청년기본법안 공동발의의 건 1
2.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19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명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8차 청년미래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2일 제7차 회의 이후 오랜만에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국회 사정으로 인해서 그동안 특위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만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우리가 바랐고 논란도 많았던 청년기본법안을 마련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에 청년기본법안 공동발의의 건을 논의하고, 이어서 청년미래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특위는 지난 4월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2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하였고, 청년 일자리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와 ‘청년기본법의 청년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사전 연구’라는 주제로 최종 용역보고서가 우리 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청년기본법안 공동발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신 김병관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위원장 김병관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 김병관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에서 심사한 청년기본법 등 7건의 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3일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난 4월 19일 특위 3당 간사회의와 5월 17일 및 금일 개최된 두 차례 소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정부 측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인 신보라 의원, 채이배 의원, 김해영 의원, 박주민 의원, 강창일 의원, 박홍근 의원 및 이원욱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청년 관련 기본법안을 심사 완료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별도의 특위안을 마련하여 특위 위원 공동명의로 발의하는 것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특위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와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청년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습니다.

1. 청년기본법안 공동발의의 건

둘째,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되 다른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정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생 모두를 포괄하기 위해서는 하한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국무총리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국무총리는 관련기관·법인·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청년 실태 조사와 청년정책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조정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며, 시·도지사 소속으로 별도의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년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요 청년시책으로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 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 지원, 청년 복지 증진, 청년 금융생활 지원,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청년 국제협력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일곱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였습니다.

여덟째, 이 법에 따른 국무총리 권한의 위임,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청년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및 청년정책에 관한 국회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과학기술인력의 양성·활용 시 청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할 것’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 대책 방안을 마련할 것’, 그리고 ‘청년정책연구시설의 구성에 있어서

청소년정책연구원 등 기존 연구시설의 활용을 우선하도록 할 것’이라는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병관 소위원장님 수고 많으셨고, 함께 심사해 주신 여러 소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들께서 발의한 이후에 제대로 심사가 안 돼서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여야 합의로 심사를 마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 없으신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네 번째로 말씀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거기에 실무위원회와 사무국을 두는데, 그동안 우리가 사실 여러 차례 정부 측에 청년정책 전담기구를 총리실에 뒀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제가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국무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서 6월 달에 아마 청년정책추진단을 발족하는 것으로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것이 생긴다 그러면 현재 법안 내용에 들어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이나 이런 기능도 함께 하면서 아마 정부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다행입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청년기본법안을 채택해서 이를 우리 위원회 위원 공동으로 발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한 청년기본법과 관련한 경미한 체계·자구 수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9시13분)

○위원장 이명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청년미

래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위원회 활동기간이 5월 29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법 제44조제6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회운영위원회에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위원실에서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보고서(안)에는 활동결과 사항으로 공동발의 청년기본법안, 회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여러 가지 정책 제언 그리고 청년기본법안에 관한 부대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보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 청년기본법안에 관한 부대의견이라고 하는 페이지가 107쪽에 있는데 저희가 청년미래특위 위원들의 전체 명의로 공동발의를 하기 때문에 이 법안에 부대의견을 붙일 수는 없어서 활동결과보고서에 부대의견을 다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만들게 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단순한 자문기구와 같은 역할에 그쳐서는 안 된다, 실질적인 심의·조정 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사무국 설치부터 시작해서 조정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내용의 부대의견을 원래 달기로 했었는데 그 내용이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문구 조정 등을 해서 그 의견을 부대의견에 추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게 수용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한 의견을?

○수석전문위원 이상규 예,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이것이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고 정책조정위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 저희도 공감 많이 갑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번 활동결과보고서 내용의 최종 정리도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특위 이제 마무리할 시점에 와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다른 말씀이나 앞으로 여러 가지 청년정책에 관해서 혹시 꼭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 한번 하시지요.

채 위원님.

○채이배 위원 아마 이번 청년미래특별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가 청년기본법의 여야 합의안을 만들어 낸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청년기본법안이 위원회의 전체 명의로 공동발의가 되고 이후에 이 법안이 실질적으로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후에도 특히 여야의 원내대표님과 원내수석님들과의 합의를 거쳐서 상임위를 결정하고 이후에 논의가 더 빠른 시일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계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채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종료를 합니다만 앞으로 후속조치가 꼭 필요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야가 함께 지금 말씀한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말씀 한번……

특위를 종료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위 활동 기간 때문에 그런 아쉬움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꼭 주실 말씀……

여기 정부 측에서도 나와 있거든요. 말씀 한번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권철승 위원 권철승입니다.

최근에 청년 복지나 청년 취업 문제가 심각한 시점에서 이런 기본법의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법체계는 만들어져 가겠지만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집행 과정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법을 만들었던 노력이나 또

의도했던 바가 제대로 실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는 물론이고 정부 측에서 오신 분들이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좋은 말씀입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 말씀 주시지요.

○**김종훈 위원** 청년 미래 문제가 심각한 만큼 미래특위를 만들어서 일곱 차례 회의를 하고 또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청년세대는 불투명하고 또 어려운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체적으로는 왜 청년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고 또 결혼·출산까지 포기하는가라는 주요 원인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 물론 기본적으로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 첫째는 고용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안정이 되지 않거나 이러다 보니까 결혼할 엄두도 잘 못 내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중에서도 좀 큰 요인 중에, 여러 가지 요인 중 주거 문제를 심각한 요인으로 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특히 문제인 정부 들어서도 여전히 집값 문제나 이런 것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남북관계나 적폐 청산이나 여러 가지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부동산 문제나 또 집값 문제나 이런 것이 여전히 해결되지 못함으로써 청년세대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그것이 어쨌든 청년들의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정부가 그런 인식을, 김동연 부총리의 말씀이나 이런 데도 보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청년들이 양육에 부담이 되는 것은 주거나 교육의 문제다, 이렇게 들고 있기는 합니까라는 근본적으로 해결이 좀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좀 세우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어쨌든 간에 청년들이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지금의 저출산 문제나 여러 가지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도에도 1.07명인가 이런 정도로밖에 숫자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1.05명. 역대 최저치 이렇게 출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주거와 많은 상호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실질적인,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내 오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지난번에 국토부에서 청년 주거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부 전체 차원에서 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그런 대책을 추진하게 촉구도 하고 저희들이 챙겨 보겠습니다.

정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정유섭 위원** 작금의 청년 문제가 아주 심각하지요. 특히 실업 문제, 결혼, 출산 이게 다 국가 경쟁력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분명히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저희들이 6개월간 청년미래특위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중간에 국회가 공전되는 기간이 많아 가지고 심도 있게는 못 다룬 것 같아요. 다행히 간사님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가지고 청년기본법안 발의를 하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안부에서 주관해서 앞으로 국무총리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든다고 하니까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저희 위원님들도 청년기본법안 이게 국회 본회의 통과될 때까지 같이 관심을 기울여 주셔서 청년 문제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립되도록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정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 우리가 청년특위에서 계속 이것을 이끌어 가지 못합니다만 여기 계실 때 이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청년특위가 마무리되더라도 계속해서 관심 가지시고 좀 더 이 청년 대책이, 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도록 함께 애써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해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해영 위원** 부산 연제구 김해영입니다.

청년 문제가 시대의 화두인 이 시점에서 최근 몇 년간 계속 논의되어 온 청년기본법안이 우리 특위에서 오늘 통과되는 사실 자체가 매우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 기본법안에 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총리 산하에 많은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들에 유

명무실한 위원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정책조정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의 각별한 의지와 또 우리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의 주거라든지 금융 지원, 여러 국제협력, 능력개발 등등 많은 내용이 이 기본법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본법의 특성상 선언적 조항이 많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 위원님들의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해영 위원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국무조정실의 장상윤 국장 나오셨지요? 말씀 좀 잘……

지금 말씀한 대로 우리 국무조정실에 위원회가 많습니다. 위원회가 많은데 상당수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일도 마찬가지로겠습니다만 이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꼭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대로 청년정책추진단 그게 생기면 업무 좀 제대로 챙겨 주시고……

또 청년정책기본법이 생긴다고 해서 바로 이게 다 실천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관련된 법, 후속 각론적인 것 그게 함께 연계가 돼서 보다 실천적인 그런 법률이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좀 제대로 해 주십시오.

○**국무조정실사회복지정책관 장상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 위원님 먼저 하십니까?

○**임종성 위원**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좀 더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년의 문화예술 활동을 좀 활성화해 가지고 청년들이 자기 나름대로 모든 것을 기획하고 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나 하면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본 틀에 맞춰 가지고 ‘청년 너희들은 따라와서 해라’ 이런 식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청년들한테 완전히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전반적인 것을 그쪽에다 위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또한 먼저 요즘 남북 간 교류도 좋아지고 있는데 직업군인을 좀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으로 나아갈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결국은 해외인력 파견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언어가 안 돼서 해외에 가 가지고 건설이나 이런 게 낭패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을 좀 해외인력으로 파견하는 것을, KOICA가 됐든 또 새마을 쪽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쪽이 됐든 또는 다시 국무총리실 산하의 청년인력 파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좀 나서서 해 줘야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

지금 임종성 위원님 말씀한 것도 꼭, 앞으로 우리가 후속 추진으로 당초 계획하고 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보고했던 사항들이 추진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각 부처에서 여기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실천사항을 우리한테 원래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중간에 잘 운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종료는 되지만 그 결과를 내라고 해서 한번 취합은 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각 부처에서 여기에 와서 뭘 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것을 실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부처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뒤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수석전문위원 이상규** 위원장님이 하신 지시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이명수** 예, 그것을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주시겠습니까?

○**박찬대 위원** 마지막으로 한 말씀……

○**위원장 이명수** 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찬대 위원** 청년기본법안을 공동발의하면서 우리 청년미래특별위원회 활동이 마무리가 되게 됐는데요. 좀 아쉬움도 있고, 우리가 이번에 공동발의하는 청년기본법안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의 많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도 꼭 같이 하겠다……

지금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는 청년의 미래에

달려 있는데 이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청년세대가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헤쳐 나가도록 하는 것은 결코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 공동체의 모든 세대가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이 전 국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우리 청년 여러분, 힘드시지요? 꼭 같이 해서 이 문제를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수** 박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김 위원님이나 신 위원님 하실래요? 말씀하세요.

김병관 간사님 먼저 말씀하시고요.

○**김병관 위원** 먼저 국회가 공전되는 과정에서 우리 청년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신 특위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3당 간사님들, 특위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신 이명수 위원장님께도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현재 대부분의 지방정부에는 이미 청년 조례와 청년담당관들을 지정해서 청년관련된 정책들을 개발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앙정부에는 청년 관련된 법안이 없었고 그리고 청년 관련된 어떠한 조직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처음으로 청년과 관련된 특위가 국회내에 만들어지고 청년기본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만들어지고 또 총리실 산하에도 6월 달에 청년정책추진단도 만들어지고, 앞으로 법이 통과가 되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무국을 두도록 했습니다.

이번 특위를 마치면서 이제 우리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줬으면 고맙겠다,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명수** 김병관 위원님, 간사로서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주신 말씀 아주 감사합니다.

또 신보라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보라 위원** 제 20대 국회 의정활동의 목표 중 하나가 바로 이 청년기본법 통과였습니다. 2016년 5월 30일에 이 법안을 첫 발의하게 됐고, 오늘 이 청년미래특위에서 이 법안을 저희 위원회 전원의 이름으로 또 공동발의하기까지 무려 2

년이라는 시간을 흘려보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년 만에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그 2년의 시간들이 굉장히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실은 7개의 법안들이 상정이 다 됐지만 기재위와 여가위에 또 나뉘면서 이 법안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현실에 절망을 했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년미래특위가 구성이 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이번에 구성된 만큼 이 특위에서 반드시 여야 공동의 합의를 도출해 내자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물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법안이 또 넘어야 될 산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모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이 위원회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공동발의하게 되더라도 또 어느 상임위에 배치를 해서 법안심사소위를 또 거쳐야 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는 기재위, 여가위 혹은 정무위에 이 모든 법안들을 다시 병합심사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데 어느 상임위에 배치가 되더라도 거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청년미래특위 위원들이 함께 합의한 이 결과물을 존중해서 꼭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희망하겠고,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그 통과 과정에 힘을 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수** 말씀 감사하고요.

특히 간사로 활동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고, 이 청년기본법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서 처리합니다만 앞으로 실질적인 그런 처리가 되도록 후속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말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이 미래특위 시작할 때로 돌아보면 시간의 흐름 또 우리 위원회 운영상 여러 가지 아쉬움이 또 남습니다.

지난해 11월 9일 날 본회의에서 구성결의안이 통과된 이후에 작년 12월 8일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시작했었습니다. 또한 우리 특위는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 청년

정책소위와 청년관련법안검토소위, 두 개의 소위를 구성했고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관계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또 한 차례의 공청회와 두 차례의 토론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특위는 업무보고, 공청회, 토론회를 병행 운영하면서 청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논의도 해 보고 또 청년기본법안 마련, 청년 관련 정책 제언, 제시 등 나름대로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이런 국회의 상황으로 소위 활동이 원활하지 못했던 점 등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요. 우리 특위에서 마련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앞으로 후속이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소속하신 상임위에서 계속해서 이 청년 문제에 대한 추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점검도 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정말 우리 청년들한테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활동을 해 주신 간사 위원님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충실히 협조해 주신 정부 관계기관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회의 준비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과 각 의원실의 보좌진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거듭, 우리 회의는 마무리됩니다만 청년 문제는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과 또 여기에 대한 노력을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청년미래특위를 마무리하는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36분 산회)

정 인 화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	상	규
전문위원	홍	성	현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	장	상	윤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장	이	억	원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장	양	철	수

○출석 위원(13인)

권칠승	김병관	김종훈	김해영
박정	박찬대	신보라	염동열
위성곤	이명수	임종성	정유섭
채이배			

○청가 위원(1인)